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왜 지켜야 할까

전홍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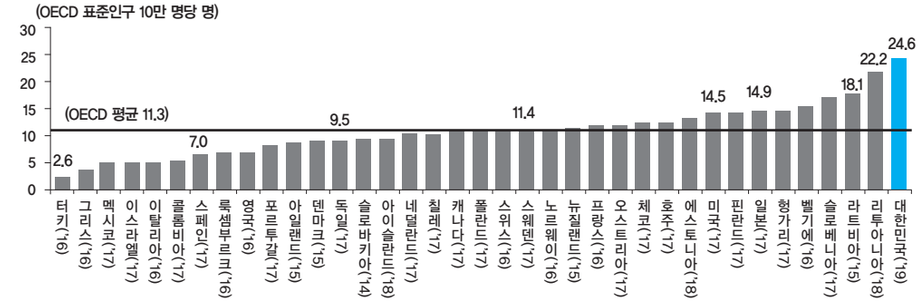
서론

1. 국내 자살의 현황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자살로 사망한 국민이 13,799명이며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1]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평균의 2배를 넘는다(그림 1). 특히,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40, 50대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대의 경우는 자살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51%로 전체 사망원인의 절반을 넘는다. 국내 자살률은 2011년에 가장 높았다가 그 후 감소하여 2017년까지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 통계청 (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그림 1]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0. 9. 추출).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7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2018년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에 의해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간(2013년 ~ 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하였다. 5년 동안 자살로 사망한 7만 명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고 기초, 광역 권역별로 지역맞춤형 보고서가 배포되고 있다(http://www.spckorea.or.kr/sub.php?menukey=41&id=data01). 이를 통해서 국내 자살 원인과 특성이 파악되고 있으며, 지역맞춤형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2]

2.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유명인 또는 평소 존경하거나 선망하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한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독일의 문학가 괴테가 1774년에 간행한 소설이다. 소설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약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깊은 실의에 빠져 결국 자살을 하고 만다.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베르테르에게 공감한 젊은이들은 그를 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이 때문에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발간이 중단되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다.

필자의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자살로 사망한 유명인이 같은 기간 동안 자살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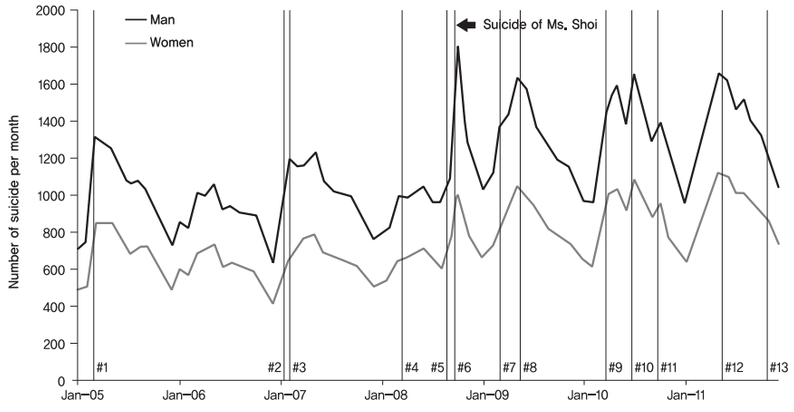
2) Kim HW, Kim YW, Lee GS, Choi JH, Yook V, Shin MH, Jeon HJ (2021. 5).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Methods of Suicide: The Korean National Investigations of Suicide Victims (The KNIGHTS Study) Front Psychiatry 2021 May 12;12:651327

한 일반인 9만 4,845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림 2). 조사 기간 자살사건으로 TV와 신문에 1주일 이상 보도된 유명인은 모두 13명이었다. 이들은 배우, 가수, 운동선수, 기업인, 작가 등이다. 이들 유명인 13명이 사망하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자살한 사람은 1만 7,209명으로 전체 자살의 18.1%를 차지했다. 유명인 가운데 특히 여배우의 자살사건 이후 일반인 자살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적으로는 통상 유명인 자살사건 이후 한 달 안에 발생한 자살 사건을 모방 자살로 본다. 조사 기간 유명인 1명이 자살한 후 1개월 동안 하루 평균 자살자는 45.5명이었다.

이는 유명인 자살 전 1개월간 하루 평균 자살자가 36.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9.4명(25.9%)이 늘어난 수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인이 연예인이나 가수인 경우 자살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여배우 자살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08년 30대 유명 여배우가 자살한 이후 한 달간 하루 평균 58.6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조사 기간 모방 자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사건 전 1개월간 하루 평균 32.5명이 자살한 것과 비교하면 일평균 자살자가 26.1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2007년 20대 여배우가 자살하고 1개월간 자살자는 하루 평균 44.5명이었다. 사건 전 1개월간 자살자가 일평균 21.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3명이나 증가했다. 2005년 20대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1개월간 자살자(41.1명)는 그전 1개월(22.9명)에 비해 하루 평균 18.2명이나 늘었다. 이 세 사례는 조사 기간 유명인 자살 후 일반인 자살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경우다.

[그림 2] 국내 베르테르 효과가 자살률에 주는 영향[3)]



3) Myung WJ, Won HH, Fava M, Mischoulon D, Yeung A, Lee DS, Kim DK, Jeon HJ (2015. 4). Celebrity suicides and their differential influence on suicid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Psychiatry Investig 2015 Apr;12(2):204-11

자살자 가운데 20~30대 여성의 모방 자살 위험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1.6배 높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30대 젊은 여성은 유명인의 자살 방법까지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명인 사망 후 자살률이 크게 높아지는 시점에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언론의 유명인 자살보도가 일반인 중에서도 젊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모방 자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젊은 여성이 자살 보도에 더 민감한 데다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표 1).

[표 1] 베르테르 효과의 추정 원인

- 감정의 전이
- 자신이나 가족, 친구와 동일시
- 힘든 현실에 처한 사람,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 자살생각을 가진 사람 등이 더 큰 영향을 받게 됨
- 연예인의 팬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줌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홈드라마가 많고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더 높아서 감정의 전이가 잘 일어날 것으로 추정됨

3. 파파게노 효과(Papageno effect)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줄이거나 신중한 보도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살률이 낮아지는 효과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018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전년 1만 3,799명보다 781명(0.57%) 감소했다. 자살률이 최고치에 이르렀던 2011년(1만 5,906명)과 비교하면 2,107명(13.2%) 줄어들었다. 2012년 자살예방법 시행과 더불어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언론현장에 적용되면서 이러한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자살예방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행 이전인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유명인의 자살 관련 보도가 나간 후 한 달 동안 일반인 자살률은 평균 18% 늘었다. 유명인의 사망 직전 한 달 평균값과 비교한 결과로 5년치 월간 평균 자살률과 코스피(KOSPI) 지수, 실업률, 소비자물가지수(CPI) 등을 모두 반영해도 자살보도가 미친 영향이 뚜렷했다. 유명인의 자살보도를 접하면서 힘든 상황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에 동조하거나 우울증, 자살생각 등 부정적 요소들이 악화되면서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난 탓이다.

하지만, 2012년 '자살예방법'과 2013년 '자살보도 권고기준'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유명인 자살

보도 후 한 달 간 자살률 증가폭이 단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그림 3). 2013년 ~ 2017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자살을 대하는 언론의 보도방향이 바뀐 덕분이다.

[그림 3] 자살예방법과 자살보도 권고기준 시행 후 자살 건수의 변화[4]

4. 타 연예인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는 2008년 ~ 2011년까지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급증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준 없이 선정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일반인들의 자살률이 따라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유명 여배우가 2008년 사망한 이후에 그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큰 영향을 주었다. 연예인 간의 자살 사망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자살로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시도가 6배, 우울증은 9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5] 동료나 가족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 미디어 보도가 타 연예인의 자살시도나 우울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다시 일반인에게 베르테르 효과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4) Jang JH, Myung WJ, Kim SC, Han MH, Yook V, Kim EJ, Jeon HJ (2021. 7).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law and media guidelines on copycat suicide of general population following celebrity suicides in South Korea, 2005–2017. Aust N Z J Psychiatry 2021 in press

5) Jang JH, Lee GS, Seo JH, Na EJ, Park JY, Jeon HJ (2020). Suicidal attempts, insomnia,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among family members of suicide victims in South Korea, J Affect Disord. 2020 Jul 1;272:423–43

본론

1. 과거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보도 사례

과거의 경우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보도는 수단과 방법, 현장 사진 등을 가감 없이 적나라하고 선정적으로 보도를 통해 소개하였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그 자체로 고위험군들에게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모방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자살수단에 대한 학습효과를 유발하는 부정적 영향력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명인 자살 사망사건 발생 시 특정 자살수단에 대한 필요 이상의 사건보도가 이어지면서, 해당 수단을 활용한 자살 빈도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과거 해외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가) 미국

미국에서는 2001년에 질병관리본부(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미국국립정신건강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미국보건총감(th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관리국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SA), 미국자살예방협회(American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FSP), 미국 자살학회, Annenberg 공공정책센터가 함께 자살보고권고기준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영문 제목은 'Reporting on suicide: Recommendations for the media'이었다.[6]

(나)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1978년 지하철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하철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자살 방법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미디어가 지하철 자살을 드라마틱하고 충격적인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자살과 자살시도 빈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오스트리아의 민간 전문가들과 자살예방협회(OVSKK)는 이에 비엔나의 신문에 실린 자살보도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에 따라 언론 보도 지침을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하고, 자살 사건 보도 시 이 원칙을 따라 줄 것을 부탁하였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1988년부터 지하철 자살률이 급격히 떨

6) Tatum PT, Canetto SS, Slater MD (2010). Suicide coverage in U.S. newspapers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edia guidelines, Suicide Life Threat Behav 2010 Oct;40(5):524–34.



어져 안정되었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자살 보도를 금지하지 않고도 언론과의 협동 하에 자살보도의 질을 높여 모방 자살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좋은 예가 되었다.

2. 최근의 보도 사례

최근에는 과거 몇 년 전에 비해 보도의 행태 등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언론 현장에서도 자살예방에 있어 언론의 책임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수단이나 장소가 언급되는 경우는 대부분 찾기 어려우며, 가장 최근의 모 밴드그룹 멤버 사망 사건 발생 시에도 '숨진 채 발견' 등의 객관적인 단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과거에 비해 기사 하단에 자살예방상담기관 안내문구 등을 게재한 보도가 매우 증가한 것 역시 언론이 자살예방을 위해 공감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특정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소 선정적인 보도가 확인되고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명존중미디어패널단의 자살보도에 대한 모니터링활동 결과를 보면, 최근에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는 크게 세 가지의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제목에 자살방법, 수단이나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사들이 발견되었다. 제목에 '집단자살'이라고 자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기사 내용 중 "테이프로 창문이 밀봉된 상태였으며, 객실에서는 다 타버린 번개탄이 다수 발견됐다",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자살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사가 다수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 고인의 인격권이나 유가족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보도가 있었다. 이는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 침해 등 법적으로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사망 이전 부모님과 다툼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는 유가족에게 심리적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사자의 사진이나 이동경로 등을 필요 이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세 번째로, 자살보도에 있어 자살예방상담기관 안내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3. 세계보건기구(WHO)의 미디어 자살 보도에 대한 권고 사항

WHO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일반인에서 자살과 자살시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7] 자살 보도 이후 일반인 자살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살이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게 유도할 뿐 아니라 보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대상자에게도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다. 반면에 자살에 대한 책임 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 언론인들은 독자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자살 위험을 높일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WHO에서 자살 보도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세계보건기구(WHO)의 자살 보도 의무: Quick reference guide[8]

Dos(해야 할 것)	Don'ts(하지 말아야 할 것)
• D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where to seek help • Do educate the public about the facts of suicide and suicide prevention, without spreading myths • Do report stories of how to cope with life stressors or suicidal thoughts, and how to get help • Do apply particular caution when reporting celebrity suicides • Do apply caution when interviewing bereaved family or friends • Do recognize that media professionals themselves may be affected by stories about suicide	• Don't place stories about suicide prominently and don't unduly repeat such stories • Don't use language which sensationalizes or normalizes suicide, or presents it as a constructive solution to problems • Don't explicitly describe the method used • Don't provide details about the site/location • Don't use sensational headlines • Don't use photographs, video footage or social media links

7) Tatum PT, Canetto SS, Slater MD (2010). Suicide coverage in U.S. newspapers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edia guidelines. Suicide Life Threat Behav 2010 Oct;40(5):524–34.

8)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Update 201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HO/MSD/MER/17.5).

4. 국내 '자살보도권고기준 3.0'[9]

[표 3]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전문

–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릅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언론과 개인이 자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경찰과 소방 등 국가기관, 그리고 개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유의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나 방법, 도구, 구체적인 장소 등을 보도하면 막연하게 자살을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 또는 장소에서 자살을 실행하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원인을 단정하는 보도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살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보도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발표 이후 언론의 자살보도 방식이 변화하면서 자살률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5가지 원칙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① 자살을 예방하려면 자살 사건은 되도록이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사건을 보도하지 않기로 한 나라들에서 실제로 자살이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 가급적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9)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한국기자협회 (2018). 자살보도권고기준 3.0



② 자살 사건을 주요 기사로 다루지 않습니다.
–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보도의 가치는 없습니다.
– 자살이 부각된 보도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방송 보도나 신문지면 등에서 자살 사건을 우선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③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대신 사망 사실을 알리는 표현을 선택합니다.
–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사용합니다.

④ 자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로 단정 지어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로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 사인을 자살로 추정하거나 단정하는 보도는 삼가야 합니다.

⑤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이거나 긍정적인 표현을 삼갑니다.
– '연이은 자살', '또 자살', '자살 확인', '자살의 전염'과 같이 자살이 유행한다는 식의 보도를 하지 않으며, '자살 성공', '자살 실패'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① 범죄 사건을 다루듯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 자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에 관한 정보나 암시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② 자살 동기를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자살은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③ 목격자의 인터뷰 내용이나 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발표라도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 사건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나 관련 기관의 초기 발표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모방 자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는 파급력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① 자살 사건과 관련된 영상 자료 사용을 자제합니다.
- 자살 장소, 방법, 도구 등에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 죽음을 암시하는 자료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유명인 자살의 경우 사진이나 영상 자료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③ 자살 사건 보도 시 자살예방 관련 기관 정보나 긴급 도움 요청 관련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림 4).

[그림 4] 자살 사건 보도 시 기사 하단에 제공 내용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상담 ☎1393, 정신건강상담 ☎1577-0199, 생명의전화 ☎1588-9191, 청소년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사건 보도 시, 위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첨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④ 이러한 원칙은 인터넷 방송, 1인 방송 등에서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① 자살을 합리화하거나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②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행위를 '동반자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③ 자살로 인해 고통이나 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④ 자살을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보도하는 경우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⑤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알립니다.
⑥ 자살예방을 위한 보도를 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①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하여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② 고인의 인격과 비밀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합니다.
③ 유가족의 신분을 노출할 위험이 있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④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6.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자살 보도

유튜브, 페이스북,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등은 자살에 대해서 보호 효과와 해로운 효과를 모두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받고 지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살, 자해, 동반자살, 자살 수단, 유명인 자살에 대한 선정적 정보는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가해, 왕따 등도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게시판은 자살 방법을 배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살 충동을 조장할 수 있다. 2018년 이후에 국내에서 다시 '베르테르 효과'의 영향이 커지는 것도 새로운 미디어에 의한 자살, 자해의 선정적 보도가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도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잘 준수하는지 감독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10)]

결론

언론의 자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는 '베르테르 효과'를 통해 일반인들의 자살률을 증가시킬 수 있고 반면에 자살에 대한 언론보도를 줄이거나 신중한 보도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살률이 낮아지는 '파파게노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WHO에 의하면 자살 보도 이후 일반인 자살률이 증가하게 되는데, 자살이 고위험군에서 발생하게 유도하는 것 뿐 아니라 보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대상자에게도 자살을 유발시킬 수 있다. 국내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서는 자살보도에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고, 잘못된 자살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으며, 자살보도 방식을 바꾸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Update 201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HO/MSD/MER/17.5).

참고 문헌

1) 통계청 (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 Kim HW, Kim YW, Lee GS, Choi JH, Yook V, Shin MH, Jeon HJ (2021. 5). Predi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Methods of Suicide: The Korean National Investigations of Suicide Victims (The KNIGHTS Study) Front Psychiatry 2021 May 12;12:651327.
3) Myung WJ, Won HH, Fava M, Mischoulon D, Yeung A, Lee DS, Kim DK, Jeon HJ (2015. 4). Celebrity suicides and their differential influence on suicid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national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Psychiatry Investig 2015 Apr;12(2):204-11.
4) Jang JH, Myung WJ, Kim SC, Han MH, Yook V, Kim EJ, Jeon HJ (2021. 7). Effect of suicide prevention law and media guidelines on copycat suicide of general population following celebrity suicides in South Korea, 2005-2017. Aust N Z J Psychiatry 2021 in press.
5) Jang JH, Lee GS, Seo JH, Na EJ, Park JY, Jeon HJ (2020). Suicidal attempts, insomnia,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 among family members of suicide victims in South Korea. J Affect Disord . 2020 Jul 1;272:423-43.
6) Tatum PT, Canetto SS, Slater MD (2010). Suicide coverage in U.S. newspapers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media guidelines. Suicide Life Threat Behav 2010 Oct;40(5):524-34.
7)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suicide: A resource for media professionals Update 201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7 (WHO/MSD/MER/17.5).
8) 보건복지부 ·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기자협회 (2018). 자살보도권고기준 3.0